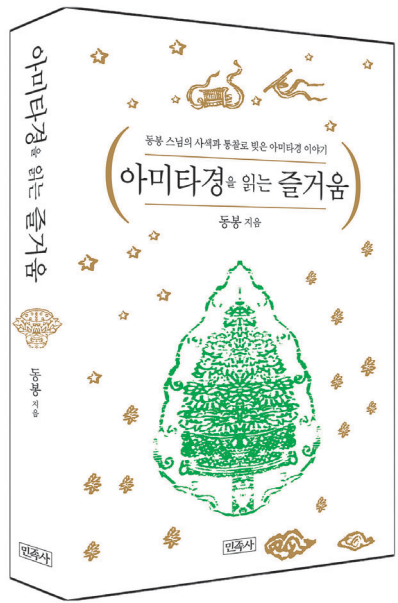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빛은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스님의 특별한 체험, 수행 이야기가 녹아 있는
수필처럼 아름다운 아미타경 해설서

동봉 지음 신국판 580쪽 23,000원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 마음을 들뜨게 하는 봄날, 출판계는 예쁜 봄꽃, 따사로운 봄 햇살과는 거꾸로 움츠러들고 서늘한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봉 스님의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이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마이뉴스 임운수 기자의 서평 첫머리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스님 어떤 분이시? (중략) 역사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한학자? 천문학자? 영화평론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슬' 하면 '우화'를 떠올리다 해도 과언을 아닐 겁니다. 이슬우화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서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 코드만 썼다면 종교서적이 갖는 무형의 무게는 목직했는지 모르지만 딱딱하고 지루했을 겁니다.

어떤 분인지, 뭐하는 분인지가 점점 궁금해지니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로 풀어나온 내용이라서 그런지 맛있는 걸 기대하다 보면 어느새 입에 침이 고이듯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점점 궁금해지고 흥미로워지는 내용들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하면서 한국불교를 전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임기자의 말처럼 이 책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한학, 역사, 영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미타경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해설해 놓았다. 게다가 100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이 책을 집필하여 날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연재, 짧은 아미타경이 58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재탄생한 것도 경이롭다. 스님의 사롱오달의 식견과 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편편마다 행간 행간마다 동봉 스님 특유의

유려한 필치가 더해져 수필처럼 쉽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그야말로 경전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미타경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무릎을 치며 가슴으로 읽히는 묘미가 있다. 특히 동봉 스님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특별한 체험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지만 우리 환경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제쳐두고 마음만으로 하는 사랑과 논리만으로 부르짖는 자비는 결코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 133쪽

환경 파괴가 스스로없이 자행되는 오늘날 환경문제는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화두이다. “20세기 환경의 바이블로 알려진 레이첼 카슨 Rachel L. Carson의 명저 《침묵

연계시켜 설명한다.

“나는 우리 법사와 함께 아미타를 보면서 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토록 아름다운 숲을 일거에 베어내는 인간군상人間群像의 욕망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 극락세계도 인간이 받을 댄으면서 곧바로 사바세계로 전락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서서 것은 어찌면 나만의 기우일까요? 제발 기우였으면 싶습니다.” - 140쪽

스님은 아미타경이야말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경전임을 강조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아미타경 해설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용이다.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본격 해설서

“부처님의 말씀에서는 이를 인연因緣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2개의 업퀴크와 1개의 다운퀴크가 인이라면 그들의 작용을 돕는 힘이 연이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인이라면 그 두 가지가 결합하게 하는 힘이 연이며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인 핵과 그 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자가 인이라고 했을 때 핵과 전자를 묶어 주는 힘이 연입니다. 원자와 원자가 인이라면 원자와 원자를 연결하는 힘은 연이며 원자와 분자, 분자와 분자, 분자와 물질, 물질과 물체, 물체와 물체가 각각 인이라면 그들 개체와 개체를 낱알이 연결하는 힘은 연입니다.” - 본문 486쪽 중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불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신앙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신앙이다. 정토삼부경 중 분량은 가장 적지만 정토신앙의 핵심요체를 담고 있어 수행의 가교이고 정토로 나아가는 안내서인 아미타경은 불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유포되어 독송되어온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은 행간 행간마다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이 빛나는 아미타경의 본격 해설서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집필, 정토 신앙을 가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송하기 쉬운 《사언절불설아미타경》, 정토신앙으로 이끄는 쉬어가기

이 책은 단순한 아미타경 해설서가 아니다. 이 책까지 57권의 책을 펴낸 동봉 스님의 사상과 안목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책이다. 또한 중간 중간 정토신앙으로 이끄는 미타인행사심판원, 장엄염불, 왕생계, 아미타불심대인상, 정토다라니 등을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사언절불설아미타경》 전문을 실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해 놓았다. 아마도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책을 뛰어넘는 아미타경 해설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동봉 스님
한국불교인으로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하였고,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에 매입한 학교 부지 35에이커와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개척한 부처님의 도량 사찰부지 2.5에이커를 학교법인과 함께 조계종단 산하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하였다. 현재 조계종단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 중이며, 곤지암의 우리절 주지로 글과 법문, 페이스북 등 SNS로도 법을 전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 《틸린다왕문경》, 《일월곡》 14책 외 다수가 있다.

동봉 스님 BTN(불교텔레비전) 특강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 일사: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60분간) 4월 2일 첫 강연~ • 장소: 불교 TV 남부순환로 2265 (방배동1027-4) • 전화: 02-3270-3355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 시리즈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지음/ 변형신국판 376쪽/ 값 15,000원
동봉 스님 저자 강연 사인회 • 일사: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부산 영광도서 • 전화: 051-816-9500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 일진 지음/ 변형신국판 312쪽/ 값 15,000원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 일감 지음/ 근간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

www.withbuddha.co.kr